5. 英國 勞動黨의 執權

○ (背景 및 意義) 18년만에 집권한 노동당은 기존의 이념 정당에서 탈피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향후에도 정권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없이 일관성있는 정책 실행이 가능해 짐

○ (對內外 政策) 노동당의 대내외 정책의 골격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국을 건설하는 것임

-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보수당의 정책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사회·복지 부문에서 노동당의 특색을 가미

○ (影響과 評價)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나 대내적으로 지나친 인플레 억제 정책으로 국내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외적으로는 보다 친화적인 對EU 접근이 예상됨

○ (우리나라와의 關係 展望) 한·영 협력관계는 심화·확대될 것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소자본 규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 종합상사의 활동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

노동당 승리의 주요한 원인은 새로운 노동당으로 변신에 성공한 내부 개혁에 있음

○ (背景 및 意義) 지난 5월 1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여당인 보수당을 물리치고 18년만에 집권에 성공함

- 노동당 승리의 배경은 이념 정당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노동당으로 변신에 성공한 노동당의 내부 개혁과 보수당 장기 집권에 대한 영국 국민의 변화 욕구가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
- 특히 노동조합에 기반을 두고 출범한 노동당이 사회주의 이념 정당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향후 영국 국내의 정치·경제 전망은 상당히 밝을 것으로 전망됨
  - 정치적으로 미국식 보수 양당 체제가 성립되는 전기가 마련됨
  - 경제적으로 급격한 경제 정책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관성 있는 경제 운영이 가능해 짐[6]

6) 특히 노동당은 1995년 '생산수단의 공공소유' 개념을 당헌에서 제외함으로 정권 교체시 되풀이되어 온 민영화와 국유화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

대내외 정책의 골격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국 건설하는 것임

○ **(對內外 政策) 노동당의 대내외 정책의 특징은 경제는 보수당의 정책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정치·사회 분야에 노동당의 특색을 가미하는 것임**

- **경제**: 소득세 인상과 재정 지출 확대 반대, 보수당이 설정해 놓은 인플레 2.5% 목표 달성
- **사회**: 장기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재정 지원,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사회 조항에 가입
- **교육**: 교육 기금 확충, 교사 증원
- **EU 정책**: 유럽통화동맹(EMU) 가입시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 실시, EU의 주요 입법에 대한 거부권 보유
- **헌법개정**: 상원의 세습 의석 폐지, 스코틀랜드, 웨일즈 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를 국민투표에 상정

지나친 인플레 억제 정책으로 국내 경기의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

○ **(對內外 政策의 影響과 評價) 노동당의 정책이 기존의 보수당 정책과 크게 차별화 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분적인 변혁은 있을 것임**

- 대내적으로 노동당이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는 부문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플레 억제임
  - 교육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영화 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세 부과
  - 인플레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(영란은행)의 독립 보장과 금리 인상 추진[7](현재 6%에서 0.25% 포인트 인상)
  - 이러한 노동당의 사회·경제 정책으로 인해 영국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및 저성장을 초래할 가

7) 중앙은행 독립의 척도가 되는 '금리의 결정권'이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, 이를 영란은행에 넘기기로 결정함.

능성도 존재함

- 한편 대외적으로는 유럽통합에 보다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[8]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EU 내에서 영국의 지위가 격상될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음
  - 노동당의 집권은 노동자 권익의 강화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신임 블레어 총리는 기존의 해외투자유치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
  - 특히 영국의 투자유치기관인 통산성 산하의 투자유치국이 과거 노동당 정권 하에서 설립된 기관이므로 기존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

노동당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양국 협력 관계는 확대·심화될 전망임

○ (우리나라와의 關係 展望) 노동당 집권에도 불구하고 韓·英 관계는 큰 변화 없이 심화·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- 신이민정책과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연간 62억 달러(수출 32억 달러, 수입 30억 달러)에 달하는 교역량을 바탕으로 양국 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[9]
- 한편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소 자본(thin-capitalization)에 대한 규제 강화를 분명히 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큰 종합상사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
- 정치적으로는 노동당은 95년이래 對北韓 접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노동당을 활용하는 대북 관계 개선도 고려해볼 필요가 제기됨 (이 원 호)

8) 영란은행의 독립성 강화는 유럽통화통합을 둘러싼 노동당의 향후 정책과도 관련이 있음. 왜냐하면 유럽통화통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중앙은행의 법적 독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. 따라서 영국이 99년 통화통합에 당장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참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음

9) 영국의 경우 아시아 중시 정책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며 한국을 對아시아 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보고 있음